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2014년 3월 15일

제 13 호

• 발행인 : 김동건 • 편집장 : 황인우
• 주 소 : 158-7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5층 3호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

E-mail annaclub7@naver.com

☎ 02-784-5040 / 070-7501-3842

2014 한국아나운서클럽 정기총회

‘올해도 재능기부 사업을 다채롭게 펼치겠습니다’

김동건 회장, 우리말을 지키고 선배들을 공경하는 아나운서가 될 것을 당부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채영신, 박광범, 김상준, 성경환, 박민정, 최기환, 황랑, 원중배, 전우벽, 신동진, 정연호, 이계진, 박용호, 유지철, 황인우, 이슬기, 이혜옥, 윤지영, 정홍숙, 이성화, 맹관영, 배덕환, 박중세, 황우겸, 김동건, 임국희, 김규홍

3월 5일 서울 여의도 열반에서 개최

(사)한국아나운서클럽의 2014년 정기총회가 3월 5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여의도 ‘열반’에서 열렸다.

총회는 38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건(전 KBS) 회장의 인사말, 박민정(전 MBC) 사무총장의 2013년 활동 보고, 김상준(전 KBS) 감사의 감사 보고 등으로 진행되었다.

김동건 회장은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도 참석해주신 원로 선배님들께 큰 박수를 보내며 선후배가 돈독한 시간 나누기를 바란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13년 활동보고 감사보고, 2014년 사업보고 원로 선배님들과 돈독한 시간 보내며 보람 느껴 정답고 아름다운 후배들의 모습 보기 위해 나온다

박민정(전 MBC) 사무총장은 “올해도 회원들의 재능기부가 다채롭게 펼쳐질 것이다. 많은 협조 바란다. 그리고 어느새 회보 창간 3주년을 맞았다. 광고 협찬 등으로 최대한 지출을 줄이며 꾸려가고는 있지만 우리만의 사무실을 장만하기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아나운서클럽은 2013년도 역점사업으로 바른말 캠페인 ‘아름답게 말해요’를 펼쳤다. 박민정, 박경희(전 KBS) 회원에 이어 제3회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제5기 방송언어 특별위원장이던 언론학 박사 김상준 감사가 책임 집필을 맡아 총 10회의 캠페인 자료를 주요 신문

사 담당 기자에게 배포한 바 있다.

김상준 감사는 “고맙다는 뜻이면 긴 발음이지만 감독한다는 뜻으로는 짧은 발음 아니냐?”라고 장단음을 강조한 뒤 “감사[감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운영하고 있어 감사[감:사]하다.”라며 끝을 맺어 웃음을 자아냈다.

황우겸(전 KBS) 고문은 건배사에서 ‘클럽의 발전을 확인하고 정답고 아름다운 후배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나온다’며 클럽의 발전과 회원들의 건강을 기원했고, 김 회장은 ‘우리말을 지키고 선배들을 공경하는 아나운서가 되자’며 화답했다.

‘봄날이 그리운 것’ 꽃향기를 맡으며 당신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정홍숙(전 MBC) 회원의 시낭송처럼, 이번 총회는 특별 회원인 춘하추동 블로그 운영자 방우희 이사장, 신동진(MBC) 아나운서연합회장을 비롯한 지상파 3사 현역까지 고루 참석해 어느 때보다 훈훈하고 즐겁게 진행되었다.

다음 정례 모임은 오는 5월 29일(목) 오후 6시 30분, 열반(783-3838)에서 열릴 예정이다.

벽촌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서 재능기부

정몽구재단 KBS미디어가 함께 실시하는 온드림창의교실

경기도 여주 가평, 경북 영양 초등학교 최화숙 황인우 김무동 쓰기 읽기 말하기 지도



최화숙



황인우



김무동

아나운서 출신들의 재능기부가 지역 초등학교에서도 빛을 발하게 된다.

최화숙(전 MBC), 황인우(전 KBS), 김무동(전 KBS) 회원이 현대차 정몽구재단 주최로 KBS미디어가 시행하는 온드림창의교실 방과후학교에 강사로 참여한다.

이들은 3월 19일 KBS아카데미에서 열리는 교과과정 설명회를 통해 사전 강습을 받은 후 각각 경기도 여주와 가평, 경북 영양의 초등학교를 방문해 4월부터 6월까지 12회에 걸쳐 20여 명의 고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매주 1시간 30분간 글쓰기, 읽기, 말하기를 가르칠 예

정년퇴직인 김무동 회원은 화요일마다 일월초(영양군 일월면)와 중앙초(영양읍)를 담당한다.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의 교육 사각지대 어린이들을 통합적 재능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고자 인문학 기반의 이과 교육을 제공하는 온드림창의교실에서는 교육 전문가가 작성한 강의안과 교재를 바탕으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고 학교를 방문해 글쓰기와 말하기를 지도할 전직 아나운서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KBS미디어 02-6939-8052)

‘이들이 있어 즐거웠고 행복했다’

가슴 뛰는 감동의 순간을 밤낮없이 생생하게 전달해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지상파 3사서 스포츠 캐스터 25명 파견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성대한 개최식을 시작으로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2월 7일부터 23일까지 러시아 소치에서 15개 종목, 98개의 금메달을 놓고 펼쳐진 제22회 동계올림픽에서 개최국인 러시아가 금메달 13개로 1위를 차지했고, 6개 종목에 참가한 우리나라는 금 3, 은 3, 동 2개를 획득해 13위를 기록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소치올림픽 현장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예년의 3배 규모인 60~80명의 방송단을 내보냈다.

KBS는 현지 MC 조우중, 엄지인을 비롯해 조건진, 서기철, 김현태, 이창진 아나운서가 참여했다. MBC는 중계를 맡은 한

광섭, 김완태, 김정근, 김나진, 허일후 스포츠 캐스터, 프리랜서 김성주와 함께 하이라이트 MC로 이재은, 스포츠 뉴스 MC로 박연경 아나운서가 현지에 투입되었다. SBS는 현지 MC와 스포츠 캐스터로 손범규, 뉴스 앵커 박선영을 비롯해 배기완, 배성재, 박찬민, 박광범, 그리고 SBS스포츠의 이동준, 이명교, 이승윤, 오솔길 아나운서가 중계를 담당했다.

소치에서 박진갑 넘치는 중계방송을 보여준 지상파 3사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4년 뒤 평창에서 치러질 제23회 동계올림픽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욱 생동감 있게 전해 세계인의 찬사를 받게 되길 기대한다. **관련 기사 3면**



피겨 갈라 쇼를 마치고 3사 중계진과 함께 왼쪽부터 KBS 조건진, MBC 이봉재 엔지니어, 박소연 선수, 변성진 해설위원, SBS 배기완, 김해진 선수, MBC 김완태, 방상아·정재은 해설위원

아나운서연합회 ‘안녕! 우리말 콘서트’ 개최

문체부와 함께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펼치기로

아나운서 우리말 수호천사 홍보대사 위촉 바람직한 언어 문화를 조성하는 국민운동에 아나운서들이 앞장섰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회장 MBC 신동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의 지원을 받아 오는 5월 29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응극장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기 가수 and 개그맨의 공연, 우리말 퀴즈 등으로 구성된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안녕! 우리말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작년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국립

국악원 예약당에서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출범식’을 열고 8개 방송사 아나운서(KBS 오연중, 정다운, MBC 오승훈, 이재은, SBS 김주우, 이윤아, CBS 김윤주, OBS 조은유, tbs 최지은, PBC 김슬애, febc 양현민)를 비롯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우리말 수호천사’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이어 1월 17일에는 신동진 연합회장과 홍보대사 등 11명의 아나운서가 유진룡 장관 주최로 여의도의 양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추진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영상해설사 교육 실시

영광시각장애인모바일도서관 주관으로 올해 10월까지 5차례 강의

1차 교육에 정도영 김관동 등 강사로 나서 클럽 회원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영상해설사 교육에 나선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소재한 영광시각장애인모바일도서관(박광재 관장)이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사회복지복지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마련한 영상해설사 교육이 성공리에 끝난 데 힘입어, 올해도 2월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다섯 차례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김규홍(전 KBS) 부회장, 김상준 감사, 박

민정 사무총장, 황인우 편집장, 이혜옥(전 KBS) 편집위원은 2월 7일 여의도의 중식당에서 박광재 관장과 만나 교육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월 22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3월 29일까지 1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열리게 될 2014년도 제1차 교육에는 정도영(전 KBS), 황인우, 박영주(KBS), 김관동(KBS), 김재원(KBS) 회원 등이 강사로 투입된다.

창간 3주년 기념 특집

클럽회보 창간 3주년을 축하합니다



칭찬과 소통의 말로 주마가편의 해가 되기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경재

라디오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방송의 역사는 아나운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과 국민의 접점에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사랑만큼이나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방송의 힘은 바로 '진실'에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진실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한 비속어나 폭력적인 언어가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의 염려가 깊은 요즘, 아나운서의 품격 있는 언어도 절실합니다. 저도 아나운서의 발전과 함께 건강한 언어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년 갑오년은 말(馬)의 해입니다. '말'이라는 동물은 앞

에서 막는 말, 막말이나 뒤에서 꼬리를 잡는 말보다는 칭찬해주는 말을 듣고 더욱 힘차게 달린다고 하지요? 아나운서 여러분께서 칭찬의 말, 소통의 말을 많이 해주셔서 주마가편(走馬加鞭)의 한 해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말처럼 힘차게 달리며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김홍수
KBS 아나운서실장

방송 일선에서 물러난 후에도 빛나는 방송 경력과 풍부한 인생 경험으로 귀감이 되어주시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후배들은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클럽회보까지 발간하시는 선배님들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신문을 통해 그동안 읽고 싶었던 선배님들의 근황을 알게 돼 기쁘고, 현역 못지않게 활동하시는 모습에서 커다란 자부심과 위로를 받습니다. 이 신문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 동포방송인들에게는 물론 국내 우수한 언론기관에도 배포돼 아나운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간 3주년을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하고 응원하며 오래도록 면면히 전승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선배님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무임승차한 후배들은 부끄럽고 감사할 뿐



신동호
MBC 아나운서국장

클럽회보에서 김동건 선배님에 대한 특집 기사를 감명 깊게 읽어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사실은 모든 아나운서들이 역사를 만드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포츠 현장에서 인간 승리

의 드라마와 함께했고, 이산가족의 눈물과 함께했으며, 평범한 사람들의 좌절과 꿈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데에는 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선배님들께서 클럽회보를 통해 묻힐 수 있었던 이야기를 엮어 주시니 무임승차한 현직 아나운서로서 부끄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클럽회보가 우리 아나운서들이 걸어온 길을 정리하는 사료(史料)가 되고, 나이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경험과 지혜의 보고로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와 함께하겠습니다



김태욱
SBS 아나운서팀장

2011년 3월 15일 아나운서들의 정보 교류와 방송문화 창달을 위해 출발했는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아나운서클럽이 걸어온 20년의 세월에 비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었지만, 아나운서클럽회보는 우리말을 지키는 아나운서

들의 결속의 구심점이 되어 3개월마다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방송과 아나운서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아나운서클럽회보는 아나운서들의 정겨운 소식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발전을 기대하며 매달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김규홍, 정경래, 이해욱, 박민정, 황인우, 이형균 편집위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SBS 아나운서들은 언제나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와 함께하겠습니다.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선배님들 소식에 힘이 납니다



홍원기
OBS 아나운서팀장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친란히 빛나는 선배님들의 손에 들려있는 마이크가 멋있어 보여 아나운서의 꿈을 키워왔고, 또 이렇게 선배님들의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아나운서를 선망의 대

상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관문을 뚫으려 도전하는 후배들을 볼 때면 선배님들이 고결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후배들을 이끌어주시며 다방면에서 활약하시는 선배님들 소식을 접할 때마다, 또 다정한 연락을 받을 때마다 늘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앞으로 반가운 소식도 더 자주 들려주시고 때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후배들에게 쓴소리와 조언도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회보 창간 3주년, 함께 기뻐합시다!



최정원
CBS 아나운서부장

20년 가까이 방송을 하며 '아나운서 선배'가 되어 보니, 선배라는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이던지요. 후배들 관심사에, 활동에, 하나하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얼마나 시간과 마음을 써야 하는 일이던지요. 클럽회보를 받을 때마

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라고 얘기하는 선배들의 마음이 행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배의 그 따뜻한 눈으로 후배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힘을 주십시오. '축하합니다!' 로 시작하려다가 그 말은 선배들만의 축하 자리에 객석이 되는 것 같아 다시 생각해야했습니다. 아나운서클럽회보는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간 3주년을 함께 기뻐합시다!

소중한 기억 아름다운 꿈 가득 담아주시요



김병훈
tbs 아나운서부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보 발간에 정성을 다해 오신 여러 방송 선배님들께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아나운서들의 힘과 창의성은 TV와 라디오, 교양과 예능을 넘나들며 다양한 방식으로 발휘되어 방

승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나운서클럽회보가 수도권과 지방, 공중파와 케이블방송, 전직과 현직을 아우르는 풍성함뿐 아니라 아나운서의 참모습을 이해하고 재조명하는 이정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봅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땅에 아나운서로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소중한 기억과 아름다운 꿈을 한 아름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볼 수 없어 귀하게 보게 됐던 회보



공부영
FEBC 방송이사

'창간 3주년, 당연히 축하해야지!' 그러면서 지난호를 찾아 다시 한 번 세밀히 읽었다. 3개월마다 발행되어 자주 볼 수 없었던, 그래서 귀하게 보게 됐던 회보이기도 하다. 작지만 편집이나 내용 구성이 재밌다. 전·현직 아나운서들의 이런 저런

얘기, 초대석, 방송가 소식, Zoom-in, 우리말 다듬기 코너도 재밌고 미주 소식도 알려준다. 지난 회보를 들춰보며 느낀 것은 현직 아나운서들의 선배 사랑이 유난하다는 점이다. 선배들에게 무한한 존경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모습이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렇게 선배들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실어 주는 회보가 얼마나 될까? 다시 한 번 감동에 감동을 했다. 이제는 조금씩 뛰어와 할 때 잘 알려진 회보, 더 기다려지는 회보가 됐으면 좋겠다.

평생 해내신 경험과 지식 전해주는 통로



박성호
PBC 아나운서부장

유년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놀이동산에 가면 많은 볼거리들이 넘쳐지만 소리만 들었을 뿐 턱없이 작은 키에 아무것도 볼 수 없어 호기심만 더해졌죠.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태워주는 목마는 호기심과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원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 아나운서로서 누리는 모든 것은 아마도 우리가 선배 아나운서인 거인의 어깨 위에 목마를 타고 있어서 가능한지도 모릅니다. 선배들이 아나운서로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현역 아나운서들에게 든든한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클럽의 모든 선배 아나운서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생 해내신 아나운서, 그 경험과 지식을 전달해 주는 클럽회보의 창간 3주년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축하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히 활동하는 소식 반가워요



이명학
BBS 아나운서부장

클럽회보가 있기에 아나운서들의 폭넓은 활동은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계신 여러 선배님들의 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1990년 햇병아리로 출발한 제가 이렇게 아나운서 선배님들의 훌륭한

글을 읽으며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다는 것에 새삼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아나운서'라는 활자를 보거나 소리를 들으면 짝사랑하는 소녀를 만난 듯 가슴이 설렌다는 어느 선배님의 말씀처럼, '한 번 아나운서는 영원한 아나운서'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느새 클럽의 새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발간 간격을 조금 좁히는 것도 상상해 보면서, 다시 한 번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창간 3주년을 축하합니다.

선배님들의 노고 연륜과 애정 가득 담긴 회보



신동진(MBC)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

저희도 월간으로 아나운서저널을 발행하기 때문에 회보를 제작하느라 애쓰시는 선배님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롯이 애정을 갖고 자원봉사한다는 마음이 아니면 힘든 일입니다. 특히 편집진 선배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해있는 회보

를 볼 때마다 저희들이 감히 담지 못할 연륜과 애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연합회는 5월에 청소년을 위해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우리말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펼쳐는 사업 하나하나가 모두 선배님들이 걸어오신 흔적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겠지요. 앞으로도 저희 후배들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클럽회보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돕겠습니다.

초대석 김인숙(전 KBS) 한국우먼스클럽 회장

요즘 여자 아나운서 위상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여성 아나운서 방송활동 개척기의 주역 지금도 왕성한 사회활동



입사 50년 차이가 나는 선·후배가 모녀 같아요. 김인숙 회원과 김보민 아나운서



1957년 연말 '아나운서 온 페레이드'를 마치고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중세, 이광재, 임택근, 강찬선, 임동순, 문복순, 강익수, 최계환, 장기범, 민병연, 강영숙, 황우경, 김인숙, 최세훈, 송석두, 윤영중, 이현숙, 장금자, 송영필



1983년 7월 국제청소년대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애리조나에서 망중환을 즐기는 한국우먼스클럽 김인숙 회장

12년차 아나운서로 방송하면서 가장 어려운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전날 밤잠을 설칠 정도로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장소로 향했다. 우리와는 달리 멋스런 모자를 쓰신 분이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다. 바로 여성 아나운서 방송활동 개척기의 주역이신 김인숙 대선배님이다.

“아마 지금보다도 인기가 대단했을 걸요? 편지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출근하면 책상 위에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어요. 길을 다니면 하도 쳐다봐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지요.”

1932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1953년 청주 아나운서로 입사한 김인숙 선배님은 입사 동기인 강영숙 고문과 함께 인기 여성 아나운서로 활동하셨다. 이듬해 서울로 올라와 근무할 때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 방송 보조로 나갔다가 남자 선배의 지각으로 행사 중계방송에 데뷔하셨던 일은 지금 들어도 드라마틱하다. 방송을 끝내고 아나운서실에 들어서자 박수가 쏟아졌더니, 얼마나 뿌듯했을까! 이는 낭독이나 곡명 소개 정도를 맡던 여자 아나운서들이 실력을 인정받아 의식 중계와 공개방송 진행자로 자리

선배들이 어린이들과 부드럽게 어울리지 못 하자 윤길구 실장이 <무엇일까요>와 <누가누가 잘하나>에 강영숙, 김인숙 선배를 한 달씩 번갈아 투입해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1962년 퇴직 후에도, TV로 옮긴 <누가누가 잘하나> 특집방송을 진행하신 적이 있다는 선배님은 “지금도 여자 아나운서가 진행하죠? 꼭 그래야 하는데...” 라고 하시며 방송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셨다.

당당하고 멋진 기운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김인숙 선배님은 1971년부터 여성의 권익 향상과 세계청소년 교류활동을 펼친 한국우먼스클럽 회장을 맡아 한미성아문화재단과 함께 2000년까지 국제청소년대회와 청소년음악캠프를 이끌었다. 또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로서 방송위원회와 공연윤리위원회 영화 심의위원, 대중상 심사위원, 육군본부 정책심사위원,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셨다.

문득 선배님은 어떤 분과 결혼했는지 궁금해졌다. 그 질문에 선배님은 내 얼굴을 한번 보시더니, “제가 김남일 선수 참

응원 많이 했어요. 그 땐 운동선수 자체가 별로 없었고, 방송국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방송 출연자로 인연이 닿아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전 작가와 결혼했어요.”

선배님이 불쑥 CD 한 장을 내미셨다. “제 남편이 생전에 작사한 곡들이예요.” 그렇다, ‘하숙생’, ‘꿈은 사라지고’의 작사가! <하숙생>, <엄처시하>, <여고 동창생>을 쓴 유명 드라마 작가로 KBS 편성계장과 TV제작과장,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고 김석야 선생이다.

남자 선배 지각으로 보조인 내가 행사중계 데뷔 여자 아나운서들이 진행자로 발돋움한 계기 마련 회사에서 드라마 작가 김석야와 남몰래 사내연애

다시 여쭙봤다. “그럼 사내 연애 하신 거네요?” 그 말에 살짝 수줍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아이는 셋을 낳았어요. 3개월 남짓 육아휴가를 받고 쉬었을 뿐 프리랜서로 국제방송과 대북방송도 했는데, 아이들이 잘 키워서 대학교수도 있고 회사 대표도 됐고...” 자제분 얘기 하실 때는 영락없이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셨다.

선배님은 1953년 입사, 난 2003년 입사. 50년의 세월 차에도 선배님과 나는

여자 아나운서로서 인생도, 아내 그리고 엄마로서 인생도 다 소중했던, 서로 다른 듯 닮아있는 모습이였다.

끝으로 후배들을 보면 어떠신지 여쭙자, “지성과 미모가 다 훌륭하고 사랑스러워요. 젊고 활기차면 다 예뻐 보이던데요? 특히 남자 아나운서와 나란히 앉아 뉴스 하는 여자 아나운서를 보면 자랑스러워요. 시대가 변해 가능한 일이지요. 후배들의 한 마디 한 마디 모두가 사랑 받았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말씀하시면서도 힘과 연륜이 느껴져 여전히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뽐어내는 대선배님과 한 인터뷰가 글을 쓰는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진다. 오늘날 여자 아나운서들의 괄목할 만한 활약도 앞선 여자 선배님들이 활동 영역을 개척하셨기에 가능했으리라.

먼 훗날 수십 년 차이가 나는 후배가 내게 찾아왔을 때 ‘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일을 했노라’고 말할 수 있을지 생각에 빠지게 했던, 아나운서의 과거와 현재와 다가올 미래를 아우르는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날 내가 드린 서양란의 이름다움을 오래 오래 간직하시겠다는 선배님의 문자에 나는 한없이 가슴이 뜨거워졌다.

글 / 김보민(KBS)

| 소치 올림픽 참가기 |

피겨 선수 출신 스포츠 캐스터의 특별한 감회

KBS 조건진



이상화 선수와 함께

흑해 연안의 휴양지 Sochi! 누구에게나 생소한 이곳은 설렘 반 기대 반으로 다가왔다. 김연아 선수가 출전하는 피겨 스케이트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었기에 경기를 준비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했다. 더구나 나는 피겨 선수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더 붙어있지 않은가?

의외의 복병 쇼트트랙 선수인 세계가 공분했던 금메달을 따냈지만, 김연아의 은메달은 금 이상의 의미가 있다. 올림픽 2연패란 역사적인 기록보다도 대한민국과 김연아를 지구촌에 알리는 아그레망 없는 외교관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빅토르 안(안현수)의 쇼트트랙도 대단했다.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든 그것은 내부의 문제이고 빅토르 안은 러시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상화와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의 대단함에도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더욱 박수를 받아야 할 사람은 소치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해 조연(?)에 그친 우리 대표 선수와 관계자일 것이다. 우리 교민이 단 한 명도 살지 않는 곳, 한국 사람이 신기해 식당에서 같이 사진을 찍자는 러시아 사람들. 그네들은 이번 기회에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모두의 노력과 선전에 박수를 보낸다.

하루 두 번 뉴스 박차지만 틈틈이 경기 관람

MBC 박연경



이제 소치올림픽의 열기와 20일 가까운 IBC 생활이 잊히지 않아 그 때를 추억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경우 과정까지 10시간은 훌쩍 넘긴 비행 끝에 도착한 소치, 미처 가방을 풀기도 전에 데스크 이원 방송 투입으로 첫 날부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소치 생활, 미디어 빌리지와 IBC를 오가며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번씩 뉴스투데이와 뉴스데스크 '여기는 소치'를 진행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날이면 셔틀버스를 타고 경기장에 가 중계실에서 경기를 보기도 했습니다. TV 볼 때와 다른 생동감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며 멘트를 써보기도 하고, 배경 화면도 고르는 등 방송을 직접 만들어간다는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특히 스타디움에서 우리 선수단이 입장할 때 저도 모르게 크게 응원을 하며 마음이 뜨거워졌던 개막식, IBC에서 24시간 내내 바빠 생활하는 가운데에도 자연스레 인사도 나누고 대화도 하면서 방송단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마음을 나누던 기억도 소중합니다.

선배들과 함께해서 더 즐겁고 든든했던 첫 올림픽 방송, 많이 배우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또 우리 선수들의 눈물과 웃음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 이 느낌을 잊지 않고 더 나은 아나운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올림픽 중계였지만 긴장의 무거운 무게는 더했습니다

SBS 배기완



러시아 소치행이 개인적으로는 아홉 번째 올림픽이었지만 긴장의 무거운 무게는 더했습니다. 3사 동시 중계와 이에 따른 시청률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SBS의 중계에 대해 대중과 언론의 좋은 평가가 이어졌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다음의 몇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밴쿠버올림픽과 남아공월드컵 단독중계를 통해 얻은 자신감과 경험입니다. SBS는 오는 2024년까지 올림픽과 월드컵의 독점 중계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하는 중계 트렌드를 간파하고, 성적과 메달 색깔보다는 스토리와 감동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선수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올림픽은 올림픽'이라는 원칙에 충실했습니다. 예능적인 요소와 외부 인력에 의존하기보다 우리의 힘으로 해내려는 노력을 보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올림픽 기간, IBC나 경기장에서 만난 KBS, MBC의 아나운서들과는 항상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했습니다. 건진 선배와 기철 씨, 재후... 한 광섭 선배와 완태, 일후, 나진...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작진들이 경쟁의 무대에서 '오르렁(?)' 거릴 때도 우리는 항상 가족 같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나운서"이니깐요!

방송가 소식

춘천MBC 화천 산천어축제장에 '얼음나라 방송국' 스튜디오 설치 CNN 방송 덕분에 백 만 관광객 몰려와 축제 한마당

1분 1초가 덧대어질 때마다 매서워지는 바람결. 쫄쫄 얼어버린 손발을 호호 부느라 입김이 마를 새가 없는 추위. 1월 혹독한 겨울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참 미스터리 한 곳이 있습니다. 시린 바람이 오히려 반가워서 미소 짓게 되는 강원도 화천 산천어축제 현장입니다. CNN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소개한 덕분일까요? 작고 소박한 마을에 국적,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찾아든 사람들로 이곳의 관광객은 100만을 훌쩍 넘겼습니다.

축제의 현장에는 모름지기 흥겨운 풍악이 울려 퍼져야 하는 법이지요? 춘천MBC 라디오는 축제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주파수에 실어 나르고자 약 한 달 동안 축제장 중앙에 아담한 라디오 방송국을 꾸렸습니다.

일명 '얼음나라 방송국'. 축제 현장에서 얼음낚시를 즐기고 있던 사람들이 즉석에서 '시민 리포터'가 되기도 하고 겨울 먹거리에 한껏 취해들던 식객들은 음식의 맛과 향을 주파수에 실어 타 지역의 청취자들을 실시간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연출과 진행을 맡고 있는 춘천MBC <정오의 희망곡>도 화천의 한낮과 함께하면서 나른해질 법한 오후에 생기를 재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현장 청취자가 풀어놓는 '재잘재잘' 소박한 입담은 화려한 리포터 군단의 재치와 끼를 넘어섰지요. '머뭇머뭇' 수줍게 입을 떼면서도 박자 타는 데 최선을 다해 맘 흘리던 '산천어 노래자랑쇼' 참가자들은 아이돌 그룹의 군무만큼이나 빛났습니다.

겨울축제 현장에서 함께한 라디오 공개방송, 다소 서툰 DJ의 요리 솜씨에도 별미를 태어나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방송이 편안한 밥 한 공기였다면 얼음 위를 생생하게 질주하던 가지각색 에피소드는



화천 산천어축제 얼음나라 방송국에서 <정오의 희망곡>을 진행하는 박수현 아나운서

시무룩하던 입맛을 한껏 살려냈다고 할까요? 생방송 중 툭툭 튀어 오르는 까다로운 변수들이 있음에도, 한밤중 야식만큼이나 거부할 수 없는 기분 좋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버스커버스커의 노래 '벚꽃 엔딩'이 공기를 한껏 포근하게 부풀릴 때쯤 또 한 번 춘천MBC 아나운서들은 축제 현장을 마주할 준비에 발걸음이 바빠질 겁니다. 따뜻한 봄날에도 강원지역의 축제 현장에서 라디오 주파수가 품은 따뜻한 울림을 오롯이 느껴보세요!

글 / 춘천MBC 박수현 아나운서
- 뉴스데스크 강원, 정오의 희망곡 진행



김성수 전 실장 글로벌한류센터장, 김동우 부장, 이창진 팀장으로 승진



김성수 김동우 이창진

3월 7일자로 김성수 전 실장이 글로벌한류센터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작년 12월 23일자 인사 발령에서 강성곤 부장이 방송문화연구소 공영성연구부장으로 전보됨에 따라 김동우 아나운서가 1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이어 1월 13일에는 한상권 아나운서가 2부 팀장으로 전보 발령되었고, 이창진 아나운서가 1부 팀장으로 승진했다.

김재원 팀장 아나운서 공부방 어문강독 실시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국립국어원 어문규정 특강 연수에 한국어연구부 김재원 팀장이 참석했다. 한편 김재원 팀장의 주도로 아나운서 공부방 어문규정 강독 2기 과정이 2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된다.

그리고 아나운서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교육도 이어졌다. 작년 연말 KBS 전문가 동포 방송사 파견 연수(3차)를 위해 최시중 아나운서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김성은 아나운서가 흑룡강성 하얼빈을 방문했다. 1월 7일에는 유지철 아나운서가 2014년 KBS 전속성우 12명을 대상으로 기본연수 강의를 실시했다. KBS 대학생 방송캠프가 1월 20일부터 2월 4일,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아나운서 교육장과 수원 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다문화가정 지구촌학교에 후원금 실장 등 10여 명 아나운서 참여

작년 12월 17일 김성수 실장 외 10여 명의 아나운서가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혼 혼한 시간을 보냈다. 이날 KBS 아나운서실은 90여 명의 이주민 자녀들이 재학 중인 '지구촌 학교'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고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차다혜 아나운서 재능기부 역사이야기 '육일기' 동영상 제작

독도로 신희여행 갔던 KBS 차다혜 아나운서가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3.1절을 맞아 우리말과 영어로 제작한 '한국인과 세계인이 알아야 할 역사이야기' 제3탄 '육일기'에 관한 동영상의 내레이션을 맡아 재능을 기부했다.

2014연세언론인상 수상 정용실 아나운서 '혼자 공부해서 아나운서 되기' 출간

<혼자 공부해서 아나운서 되기(나무생각)>를 펴냈다. 이 책에는 1991년 KBS 공채 18기로 입사 후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며 터득한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 있다.

한편 정용실 아나운서는 3월 4일 열린 연세언론인의 밤 행사에서 이준희 한국일보 부사장과 함께 2014년도 연세언론인상을 받았다.



어린이와 함께하는 젊은 엄마들



이정민 <뽀?뽀! 키즈스쿨>

<뽀뽀>의 후속작품 <뽀?뽀! 키즈스쿨(월~목 오후 4시 30분)>은 이정민 아나운서가 다양한 놀이와 지식은 물론 영어까지 배울 수 있도록 이끈다.



김경화 <신통방통 호기심탐험대>

<신통방통 호기심탐험대! (금 오후 4시 30분)>는 <뽀뽀>의 뽀미 언니 출신 김경화 아나운서가 발랄하고 재미있게 진행한다.



류수민 <꾸러기 식사교실>

<꾸러기 식사교실(금 오후 3시 10분)>은 귀여운 외모에 음식도 잘 만드는 류수민 아나운서가 편식하는 아이들을 위한 밥상 정보를 알려준다.

충주 출신 최현정 아나운서 충주 홍보대사로 위촉



충주 출신 최현정 아나운서가 충주 홍보대사에 위촉되어 1월 1일 이종배 충주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최 아나운서는 2002년 원주 MBC 아나운서, MBC 기상캐스터를 거쳐 2005년부터 MBC 아나운서로 일해왔다.



배성재 아나운서<정글의 법칙> 출연



소치올림픽에서 멋진 중계를 보여준 배성재 아나운서가 3월 10일부터 29일까지 <정글의 법칙>에 출연하기 위해 브라질로 떠났다. 배 아나운서는 아마존에서 촬영을 하며 월드컵이 개최되는 브라질을 미리 경험하게 되었다.

박지성 선수 약혼녀 김민지 퇴사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작년 12월 30일 '2013 SBS 연예대상'에서 '아나운서 상'을 받은 박지성 선수의 약혼녀 김민지 아나운서가 3월 7일 퇴사하며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에 따라 <토요모닝와이드>는 장예원 아나운서가, <세상에 이런 일이>는 이윤아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신용철 아나운서 3.1절 특집 제작·진행



신용철 아나운서가 1, 2월에 직접 일본 오사카와 도쿄를 다니며 제작하고 내레이션을 맡은 3.1절 특집 프로그램 <내 이름은 독도, DOK DO입니다>가 3월 1일 오전 8시에 방송되었다.

김소원 TV <접속 무비월드> 진행 조정식 <사운드 오브 뮤직> DJ 발탁

전임 유혜영 아나운서가 미국 어학연수를 떠나며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에 따라 김소원 아나운서가 1월 18일부터 '접속 무비월드'의 새 안방마님이 되었다. 또한 조정식 아나운서가 1월 13일부터 파워FM '사운드 오브 뮤직' (월~금 오전 4시~6시)의 DJ를 맡았다.



최정원 아나운서 부장으로 승진

2월 14일자로 최정원 아나운서가 부장으로 승진, 지용 신임 국장과 함께 편성국을 새롭게 이끌고 있다.

1995년 춘천 CBS로 입사, 대전 CBS를 거쳐 2003년부터 서울에서 근무해온 최 아나운서는 <CCM 캠프>,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의 음악 프로그램을 1인 제작·진행하며 청취자들의 호응을 받아왔고 현재 <웰빙 다이어리>를 담당하고 있다.

작년 연말 CBS 아나운서들 '오픈 스튜디오 데이' 진행



12월 24일과 31일은 이른 아침부터 자정까지 '오픈 스튜디오 통통'에서 릴레이 생방송을 실시했다. '오픈 스튜디오 통통'은 지난 해 11월 문을 연 이래 인기 DJ들의 생방송 실시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통통'에서 생방송 중인 김필원 아나운서

1인 제작·진행 <신지혜의 영화음악> 프로그램 방송 16주년 맞아

신지혜 아나운서가 1998년 2월부터 1인 제작·진행해 온 <신지혜의 영화음악>이 2월 2일로 16주년을 맞았다.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부터 청취자들에게 영화와 영화음악에 대한 새로운 느낌과 시선을 전하며 인기몰이를 한 대표 영화음악 프로그램이다.



3·3 봄 개편에 아나운서 대거 투입

3월 3일 실시한 봄 개편에 아나운서들이 대거 투입되었다. 지난 달 출산휴가를 마치고 tbs-FM <행복한 8시>로 복귀한 김두희(사진) 아나운서는 "교통방송이라는 편견을 깨는 분위기 있는 저녁시간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막내 아나운서 전형운, 김혜지는 입사 후 처음으로 라디오 생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청취자들과 만난다. <주말이 좋다 전형운입니다(토, 일 오후 6:00~8:00)>에 이어 <주말이 좋다 김혜지입니다(8:00~10:00)>를 통해 발랄함으로 물들어 질 주말 저녁이 기대된다.



신입 신의석 아나운서 입사



1월 2일자로 신의석 다니엘 아나운서가 입사했다. 신 아나운서는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라는 나폴레옹의 이야기를 좌우 명으로 삼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부진 각오로 노력하고 있다.

염수정 추기경 서임 바티칸 생중계

한국 천주교의 세 번째 추기경 탄생을 기념해 평화방송TV에서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서임 관련 특집 방송을 마련했다.

바티칸 현지에서 생중계된 추기경 서임미사와 특별대담, 추기경 서임 축하미사에 박성호 부장을 비롯해 지승신, 김현주 아나운서가 진행자로 참여해 감동의 순간을 전달했다.



1월 27일 부분 개편 단행,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 자리 바뀌어

아나운서들의 진행 능력 향상과 프로그램의 활기를 높이고자 진행자들의 자리 이동이 있었다. 국제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는 <월드뉴스>와 하루를 마감하는 <뉴스라인>을 맡았던 앵커들이 자리를 맞바꿔 김준호 아나운서가 <뉴스라인>, 김하나 아나운서가 <월드뉴스>를 진행한다. 생활정보와 이웃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랫따차 7시>는 최지혜 아나운서가 맡았고, 조은유 아나운서는 연예 프로그램 MC로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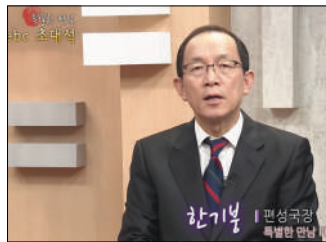
최지혜 아나운서 신설 <맘스 닥터> 진행

최지혜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의학교양정보 프로그램 <맘스 닥터(Mom's Doctor)>를 신설했다.

3월 2일 첫 녹화를 한 최 아나운서는 출연자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이끌게 돼 설렘과 책임감이 교차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편성국장 한기봉 아나운서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진행



2014년 1월 부임한 편성국장 한기봉 아나운서가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일 오전 8시)>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한다.

극동방송 인사옥에 새로 마련한 영상스튜디오에서 각계 전문가, CEO, 신앙인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인터넷 영상 VOD로도 시청할 수 있는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극동방송 신년음악회, 양현민 아나운서 유인촌 전 장관과 공동 진행

2014년 극동방송 신년음악회(기획/연출: 박수훈 PD)가 1월 6일 오후 7시 30분 극동방송 인사옥 지하 1층 아트홀에서 열렸다. 양현민 아나운서와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함께 진행한 이 음악회에는 바리톤 김주택, 소프라노 홍주영, 바이올리니스트 민유경, 오르가니스트 신동일이 출연해 1000여 명의 애청자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사했다.



신입 김형기 박지혜, 신설 아침 종합 뉴스 <BBS 뉴스> 앵커로 투입



불교방송 BBS TV가 <주간 교계 뉴스>를 시작으로 <교계 뉴스 브리핑>과 <헤드라인 뉴스>에 이어 2014년 1월 1일 오전 7시 다양한 불교계 소식을 심층 보도하는 종합뉴스 <BBS 뉴스>를 시청자들에게 선보였다.

김형기, 박지혜 아나운서(사진)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BBS 뉴스>의 앵커를 맡아 불교계 현장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아나운서부의 새 가족이 된 두 아나운서는 BBS TV 뉴스 뿐 아니라, 아름다운 음악과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오늘은 좋은 날>(월-일 오전 7시/ 박지혜 아나운서)과 <찬불의 노래>(토-일 오전 9시/ 김형기 아나운서)의 진행을 맡아 청취자들과 만나고 있다.



눈초 翹初 이규향(전 KBS)의 발음 이야기 3

비른말살천운동시민협의회 제공



지난 번에는 국어라는 나무의 두 줄기에 해당하는 '표기'와 발음의 황금률'과 '표준어, 표준발음의 당위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으로는 거기에다 가는 줄기와 잎을 그려보고자 한다.

음악에는 음의 장단長短과 고저高低를 나타내는 음표音標가 있다. 언어에도 이에 해당하는 성조聲調가 있다. 음악에서는 음

표가 일정하다. 그러나 언어에서는 극소수의 경우 뜻(훈訓)에 따라 장단음의 소리값(음가音價)이 달라지기도 한다.

'장長'의 경우 뜻이 ① '길다/오래다' 일 때는 예) 장기長期間, 장수長壽, 장신長身, 장어長魚, 장점長點, 장편長篇처럼 성조가 짧아진다. 반면 뜻이 ② '어른/높다/만이/자라다' 일 때는 예) 장관長官[장:관], 장녀長女[장:녀], 장로長老[장:노], 장성長成[장:성], 장유유서長幼有序[장:유유서], 장자풍도長者風度[장:자풍도]처럼 성조가 길다.

'단短'의 경우 혼은 '짧다'이며 예) 단명短命[단:명], 단시간短時間[단:시간], 단신

短信[단:신], 단조短調[단:조], 단축短縮[단:축], 단편短篇[단:편]과 같이 성조는 장음이다. 초애향심超愛鄕心에 불타는 일부 증견학자들이 서울말로 규정된 현 표준어는 부당하다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으나 패소한 코메디 같은 사건이 있었다. 표준발음을 무시/경시하는 일부 국어학계의 풍토와 재기에서 벗어나는 '끼'가 판치는 현 방송계의 현실에서 이러한 글은 무용지물일지 모른다.

일본어의 모든 한자는 소리로 읽는 음독音讀과 뜻으로 읽는 훈독訓讀도 알아야 하는 어려운 외국어이다. 국어의 모음이 21개인데 비해 일본어는 5개의 기본 모음밖

에 없어 쉽다고 오해하고 있다. 한때 NHK 국제국에서 근무했던 김유홍 아나운서가 '선생先生과 선서宣誓[-]'의 표준발음의 악센트를 할 수 없다고 실토한 적이 있다.

제작년 NHK 오사카 아나운서가 무화과 無花果[이찌지꾸]라는 발음을 못 해 일본 사회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일본의 모든 가정에는 자국어사전과 한화자전漢和字典이 있다. 우리나라의 한 유학儒學 대가가 중국에서 비롯된 유교의 예가 일본에서 만개했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일본인 대화에는 욕설이 없다. 이들의 철저한 국어 규범 준수 생활이 정신세계를 지배한 것은 아닐까.

장음長音[장음]은 단음短音이요 단음短音[단:음]은 장음長音이다



회원 동정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최만린전> 개최



최만린 (전 KBS) 고문

4월 8일부터 7월 6일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제1전시실 및 중앙홀에서 회고전을 개최한다.

서울대 미대 조소과 대학원을 다니며 1958년부터 1960년까지 아나운서로 활동한 최 고문은 서울대학교 미대학장,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한국아나운서클럽 제6대 회장을 지냈다.

SBC(서울시민방송) 고문으로 위촉돼



최계환(전 MBC) 고문

1988년 창간한 시정일보(구 시정신문, 대표 주동담)가 올 3월 SBC(서울시민방송)을 개국하며 고문으로 위촉되었다.

또한 2월 14일 국회방송(NATV) '현대사 산책'에 출연해 몬트리올 올림픽 중계방송 이야기를 나누었다.

KBS 1TV <한국, 한국인> 프로그램에 출연



전웅덕(전 KBS) 고문

1월 26일 KBS 1TV <한국, 한국인(정용실 진행)>에 출연했다.

전 고문은 1954년 KBS 부산 아나운서로 시작, 그 후 기자, 광고인으로서 한국 미디어산업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활약을 전했다.

고전번역교육원 3년 연수과정 입학



권혁화(전 MBC)

3월 3일 한국고전번역원(서울 종로구 구기동)이 한문번역가 양성을 목표로 개설한 고전번역교육원 연수과정(3년)에 입학, 1학기는 야간수업을 듣고 있다.

권 회원은 1984년 1월부터 5년간 아나운서실 근무 후 홍보실을 거쳐 '94년 명퇴하고 MBC아카데미에 근무해왔다. 2011년 3월 MBC 사우회에 한문동호회가 만들어진 것을 계기로 한문을 배우기 시작, 퇴직을 앞두고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며 사는' 토대를 구축하는 셈이다.

허핑턴포스트 한국판 편집인으로 활동



손미나(전 KBS)

한겨레와 허핑턴포스트가 공동으로 설립한 온라인 소셜 뉴스 미디어 허핑턴포스트 한국판 편집인으로 활동 중이다.

블로거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형식의 공론장 허핑턴포스트 한국판은 세계 11번째로 2월 28일 오전 7시 발행되었다.

KBS <토요 아침마당> 라디오 MC 노래경연 출연



이지연(전 CBS)

2월 15일 KBS 1TV <아침마당-가족이 부른다(도경완, 이지연 진행)> 라디오 MC 노래경연에 가수 주현미, 이무송, 강수지 등과 함께 출연해 2등을 차지했다.

제3라디오에서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을 진행 중인 이 회원은 1969년부터 1979년까지 CBS에서 근무한 후 프리랜서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줄곧 방송해왔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 <대박 서울> 출판기념회 열어



정미홍(전 KBS)

3월 3일 오후 3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정미홍의 대박 서울>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정 회원은 정의실현국민연대 상임대표로서 1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TV조선 신설 프로그램 <낭만논객> 진행



김동건(전 KBS) 회장

TV조선에서 1월 13일 신설한 토크쇼 프로그램 '낭만논객' (목 오후 8시 40) 진행을 맡아 김동길 박사, 가수 조영남과 호흡을 맞춰 낭만과 논리가 있는 7080대들의 수다 토크쇼를 펼치고 있다.

CTS 기독교TV 부군과 함께 출연



백연숙(전 MBC)

2월 11일 CTS 기독교TV <내가 매일 기쁘게(최선규, 유애리 진행)>에 부군 김중권 전 KBS미디어 사장과 함께 출연했다. 1969년부터 1972년까지 대구 MBC에서 근무한 백 회원은 1985년 KBS 1TV '아침마당' '주부 리포터'로 활동을 재개, 리포터계의 대모로 불리며 KBS아카데미에서 13년간 강의했고 지금도 노년 대상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단국대 석좌교수로 방송영상산업론 강의



남선현(전 TBC)

단국대 석좌교수로 임명되어 방송영상산업 이론과 실무를 강의하고 있다. 남 회원은 1974년 TBC 아나운서로 입사, 기자로 전직한 후 KBS 워싱턴·뉴욕 특파원,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KBS미디어 사장, JTBC 사장과 고문을 지냈다.

채널A 신설 프로그램 <토요 뒷담> 진행



박찬숙(전 KBS) 부회장

채널A에서 1월 25일 신설한 생방송 <토요 뒷담(토 오후 5시)> MC를 맡았다. 또한 송지현(전 KBS) 회원이 진행하는 MBN '뉴스와이드' (월~금 오후 5시 50분) 화요일 고정 패널로 출연 중이다.

출산 한 달 만에 jtbc <썰전> MC석 복귀



박지윤(전 KBS)

2월 4일 둘째를 득남한 박지윤 아나운서가 출산 한 달 만에 방송에 복귀했다. 박 회원은 3월 6일 jtbc <썰전> 진행자인 강용석, 김구라, 김희철, 이윤석, 이철희, 허지웅과 함께 홍일점 안방마님으로 등장해 프로그램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동아방송예술대 초빙교수, 문화산업론 강의



최윤락(전 KBS)

동아방송예술대 초빙교수로 임명되어 아나운싱 과목과 문화산업론 등을 가르친다. 최 회원은 1976년 동아방송(DBS)에 입사, 2007년 KBS 퇴직 후 동양미래대학, 대구사이버대학, 인하대학교, 한세대 영산신학대학원 등에서 강의해왔다.

이주민여성 우리말 가르치기 노년시대신문에 소개돼



이팔웅(전 KBS)

이성화(전 TBC)

(사)관악공동체라디오 (관악FM·100.3MHz) '굿모닝 세상의 아줌마들' 중 '노래 속에 말 속에 우리말 회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여성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재능기부 활동이 1월 17일자 노년시대신문에 소개되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2014모닝콘서트' 진행



황인용(전 TBC)

2월 11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의정부예술의전당의 '2014모닝콘서트', <황인용과 장일범, 두 남자의 수다>를 진행하고 있다.

모닝 콘서트는 다양한 장르, 화려한 출연진, 친근한 해설로 펼쳐지는 음악회이다.

홍익대 초빙교수, 현대인의 화법 강의



이영혜(전 SBS)

홍익대 교양학부 초빙교수로 현대인의 화법을 가르치며 국민대 정치대학원과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강의 중이다. 이 회원은 1977년 동양방송(TBC)에 입사, 1985년 KBS 퇴직 후 1991년부터 1995년까지 SBS에서 근무했다.

유기농 수제 파이 판매 '아나스파이' 사업 시작



배유선(전 KBS)

정년퇴직 후 취미를 살려 유기농 수제 파이(참쌀, 호두, 애플) 택배사업 '아나스파이' (010-2616-7359, 070-8265-7359, 네이버 블로그 아나스파이)를 시작했다. 1978년 1월 CBS에 입사한 배 회원은 방송통폐합 후 1996년 남편의 사업 관계로 대전 근무를 자원해 작년 3월까지 근무했다.

버마 선교여행, 빈민촌에 의약품 학용품 전달



임주완(전 MBC)

2월 4일 버마로 출발해 4박 6일간 선교여행을 다녀왔다. 대현장로교회 장로로 선교부장을 맡고 있는 임 회원은 빈민촌인 프라잉파야, 인내레이크를 방문해 의약품과 학용품을 전달하고 위생을 점검하는 봉사활동을 이끌었다.

창간 3주년 특집 Zoom-in

김규홍(전 KBS) 부회장

“끼어야 일이 되고 곳은 일도 마다않는 순수한 흥행사”

클럽 소식지 만들며 5년 전부터 회보 발행 구상

회보 창간 3주년을 맞아 편집장으로서 아나운서클럽의 산 증인이라 회보 발행의 산파역, 아나운서계의 마당발로 통하는 김규홍 부회장을 만나보았다. 무슨 일을 벌이건 ‘열렬한 김규홍 선배님’이 끼어야 모임이 만들어지고 유지되기에 ‘순수한 흥행사’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그 능력을 상업적인데 쓰셨으면 돈 많이 버셨을 텐데, 곳은일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내가 골치 아픈 편집 일을 하며 얻는 게 있다면 ‘김규홍 선배님 같은 분의 진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 된다’를 말하기에 앞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쪽으로 해결해보려 노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탁월한 유머와 특유의 친화력으로 남들이 꺼리는 일을 성심성의껏 해낸 김 부회장 덕분에 한국아나운서클럽이 지속되고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글 / 황인우 편집장



데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후배들에게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강조한 김규홍 부회장

박민정 사무총장과 황인우 편집장을 비롯해 정경래, 이혜옥, 이형균, 정영호(미국 LA)편집위원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언제부터 아나운서클럽 일에 관여하셨나요? 소그룹 모임때부터 참여했습니다. 30년 전쯤 되네요. 강찬선, 황우겸, 임택근, 전영우, 박중세, 최만린, 김동진 회장에 이르기까지 내내 모임에 관여해왔기 때문에 다른 회원보다 사정을 좀 더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할까요?

지금은 바통을 이어받은 박민정 사무총장이 훌륭히 해내고 있지요.

컴퓨터, 휴대전화 없던 시절엔 얼마나 일이 많았을까요?

물론이지요. 회보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소식지를 작성해 초청 안내장을 만들어 봉투에 일일이 우표를 붙여야 했고, 일반 다이얼 전화 연락을 하기 위해 종일 전화통을 붙들고 살았지요.

현재 미국에 살고 있지만 당시 간사 일을 맡았던 강미란 아나운서와 나누어서 모임 연락을 하는데 한 사흘 걸렸습디다.

제가 컴퓨터를 좀 하는 편인데, 엑셀, 일러스트 등을 다루다 보면 정말 옛날에 고생했던 생각 많이 납니다.

그래도 보람이라면 아나운서클럽을 모범적인 모임으로 발전시켰고 아나운서들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이지요. 회보까지 발행하게 되어 정말 뿌듯합니다.

‘일은 많지만 좋은 소리는 듣기 어려움’ 동호회의 충무를 오랜 기간 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내신 겁니까?

글쎄요. 한마디로 그때그때 충실히 했을 뿐입니다. 아나운서 직종은 특히 선·후배 사이가 반듯하고 선배에 대한 존경과 후배에 대한 애정이 늘 깔려 있기에 충무 일을 하는데도 힘든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탁월한 유머와 특유의 친화력으로 결코 쉬운 일도 동분서주하며 해내는 아나운서계의 마당발 5주년 때는 매달 발행하는 회보 만들어낼 터

‘선배님은 어떤 방송을 하셨나?’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1968년도에 KBS 서울중앙방송국 아나운서가 되었는데, 벌써 46년 전의 얘기가 되는군요. 여의도가 군용 비행장이던 당시, 공군병장으로 제대를 앞두고 문화공보부 공채 1기 아나운서 모집에 응시해 입사했는데, 당시 동기생이 김영소, 박찬숙, 이정부 등입니다.

방송은 뉴스는 기본이고 시사, 교양, 오락 등 프로그램을 골고루 많이 했지요. 음악 DJ도 했습니다만, 1970년대 제1라디오 <오후의 교차로>를 3년간 진행하며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을 만났던 것이 떠오릅니다.

방송하며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사회교육국장을 끝으로 2005년에 KBS

에서 퇴직할 때까지 37년간 아나운서와 PD로 일했으니 추억거리가 많지요.

특히 1983년 처음으로 실시한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과 예술단 공연의 방송단원으로 김동진 회장과 함께 최초로 평양을 방문하게 되어 역사적인 방송을 했던 것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1987년 방송유공 대통령 표창, 1995년 제22회 한국방송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가정생활과 사회활동도 소개해주세요.

독일상공회의소에 근무하던 아내와 결혼해 아직 미혼인 아들과 사는데, 영리한 애완견 보스턴테리어 한 마리도 가족이지요. 교회 선교회 직분도 맡고 있고 용인시의 지역 노인회장으로서 아침 교통봉사 활동도 하지요. 또 KBS 사우회 이사, 용산JC 특유회 회장단의 대표회장 등 이런 저런 일을 맡아 즐거운 마음으로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회보 편집위원으로서 바람도 들려주십시오.

현재 총 2,000부를 발행해 300여 명의 클럽 회원과 500여 명의 현역 아나운서 그리고 국내 각 신문방송사와 유관단체, 정부 기관, 주요 도서관, 각 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사회 저명인사와 미주지역 동포 방송인 등에게 우송해 큰 호응을 받고 있어요. 5주년이 될 때는 월간으로, 또 발행부수도 3,000부로 늘려 직종별 모든 방송인이 받아 보는 회보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먼저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추진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사실 클럽회보를 5년 전부터 구상했지만 예산 문제와 편집진 구성이 큰 걸림돌이었지요. 그러다가 이혜옥 회원의 적극적인 제안과 든든히 받쳐주는 회장님 덕분에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창간 3주년을 맞이까지 열심히 연회비도 내주시고 광고를 수주해주시는 회원들의 노고와 편집진의 열정이 빛어낸 결정체이지요.



미주 한인방송 창시자 김영우 아나운서 남가주대에 방송장비 기증



50년간 미주 한인 방송과 동포사회에 기여한 김영우 아나운서의 방송장비 기증식 후 USC 동아시아도서관 켄 클레이 관장과 함께

김영우(전 MBC 86세) 아나운서의 은퇴 겸 미국 방송 활동 50년 축하모임이 2월 12일 오후 2시(현지 시각) LA USC(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열렸다. 회고록 DVD 방영과 리셉션이 있었던 이날, 동아시아도서관 켄 클레이(Ken Klein) 관장은 50년간 쓰던 방송장비를 USC 한국전통도서관에 기증한 김영우 회원에게 감사패를 주었다. 1961년 MBC 공채 1기 아나운서로 출발한 김영우 회원은 1963년 미국 콜롬비아 방송학교에 유학가 1965년 6월 12일 LA 하늘에 최초로 한국어 방송 전파를 쏘아 올렸다. 그 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진행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로서 한인 이민사를 생생한 음성과 영상으로 기록해왔다. 글/정영호(전 KBS) 편집위원

알림

축하합니다

- 전진영(전 KBS) 5월 11일(일) 오후 3시 30분 KBS웨딩홀 장녀 배연경 양 혼사
채영신(전 KBS) 4월 18일(금) 오후 7시 그랜드하얏트호텔 장남 이혜동 군 혼사
이하정(TV조선) 배우 정준호와 결혼 3년 만인 2월 14일 득남
차다혜(KBS) 2013년 3월 혼인 후 2월 10일 득남
최동석(KBS), 박지윤(전 KBS) 2010년 첫째 딸에 이어 2월 4일 득남
조수빈(KBS) 결혼 2년 만에 1월 18일 득녀
이지민(CBS) 1월 11일 현대기아자동차연구소 연구원과 혼인
이효주(BBS) 1월 11일 신경외과 의사와 혼인
정희준(전 KBS) 1월 9일 차남 성권 군 혼사
송정훈(CBS) 2013년 11월 30일 회사원과 혼인

조의를 표합니다

- 이현경(SBS) 3월 5일 부친상
조건진(KBS) 1월 25일 모친상
장금재(전 KBS) 1월 4일 상배

수고하셨습니다

- 3월 31일 이미선(KBS) 정년퇴직
3월 7일 김민지(SBS) 퇴직
CBS 창사 59주년 기념식(작년 12월 13일) 근속상 수상자
25년 최명진, 춘천 CBS 정예현, 부산 CBS 장문상
20년 장주희(현재 기획조정실 홍보팀장)
10년 박재홍

고맙습니다

Grid of donor portraits and names with donation amounts: 김인숙(전 KBS) 100만 원, 황우겸(전 KBS) 50만 원, 이후재(전 KBS) 30만 원, 박중세(전 TBC) 50만 원, 박찬숙(전 KBS) 50만 원, 이계진(전 KBS) 50만 원, 이금희(전 KBS) 50만 원, 지승현(전 KBS) 100만 원. Includes a heart icon and text '3월 10일까지 입금 순' and '클럽 발전 기금 내 주신분'.



GASTROPUB

☆☆☆ EAT & DRINK ☆☆☆

GASTRO
PUB
☆☆ EAT & DRINK ☆☆

서래마을점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10-2 1F
판교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40 아브뉴프랑 2F

CHINESE CUISINE

CHAI 7°7

CHINESE CUISINE CHAI 7°7

서래마을점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10-2 2-3F / 청계천점 서울시 중구 수하동 67 미래에셋센터원 B2F
이태원점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9-45 호성빌딩 2F / 현대중동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1164 현대백화점 8F